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도, 살수차 운영횟수 증대와 조업시간 운영 단축·조정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강화·조기폐차 대폭 확대

전북도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연구결과 전북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2%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농도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분석결과 전라북도지역에서는 ①비산먼지발생, ②생활성연소, ③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PM2.5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유기와 원소탄소(OC/EC)의 비율과 PM10과 PM2.5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성분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NO3-), 암모늄(NH4+), 칼륨(K+)의 상관도가 매우 높게 분석됨에 따라 생활성 연소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공사시간 변경 및 단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둘째, 생활성 연소에 따른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농업 잔재물 수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퇴비 활용이 안 되는 부산물 등은 일제 소각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마을 내 현수막 설치와 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2차 질산염(NO3-)과 황산염(SO42-)유발 요인인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조기폐차를 매년 1만대씩 6만6,000대 이상 대폭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암모니아(NH3) 등은 시·군과 함께 저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확대 추진하고, 대기오염배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도 120대 이상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의 정체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도심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도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타 2차 오염발물질인 암모니아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축사 및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퇴비화시설 밀폐 및 저감시설 지원과 탈취탑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약취 심각지역 18개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

돈분뇨 배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6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2부제 실시를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도민들은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3월중에 제정하여 일정기간 홍보를 거쳐 비상저감조치시 미세먼지 발생원을 적극 차단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행차 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성분 특성과 오염원 추정 연구'를 올해 추진하는데 추진배경은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주요 오염원을 추정하고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평가를 통해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주시 중앙동 측정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미세먼지 성분분석(이온, 중금속, 탄소성분)과 모델링을 통한 오염원 기여도평가 등을 하게 된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시·군과 협업체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을 높여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대형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00% 참여

200인 이상 13곳 모두 참여키로

전북지역 대형 사립유치원 13곳 모두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100% 참여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교육감 주재로 200인 이상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협의회를 갖고, 최종

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협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에듀파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교육청 인근 학교와 에듀파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1:1 멘토를 지정했고, 사용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멘토들은 컨설팅 현황을 수시로 체크해 소속 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조기 정착을 돕고,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도내에서는 총 20곳의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사전컨설팅으로 재해예방사업 예산 49억원 절감

전북도는 지난달 2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 41개소에 대한 현장별 맞춤 사전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49억원의 사업예산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급경사지 정비 2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0억원, 재해위

험개천지구 4억원, 소화천정비 6억원이며, 이는 총사업비의 3.3%(1,461→1,412억원) 규모이다.

재해예방사업 사전컨설팅은 18년부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위험해소에 소요되는 설계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이며, 지난해에는 36개 지구를 대

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추진한 결과, 39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하천, 토질,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3개반 8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각 현장별 사업계획을 사전 분석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시·군 사업부서와의 토론을 통해 최적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추진되었다. /김진성 기자



4대종단 인구늘리기 실천협약 체결
지난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4대 종교단체(성우 금산사 주지스님, 김광혁 전북기독교 총신장로위원회 목사, 한은숙 원불교 전북교구 교무, 박성필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 신부) 대표, 이영환 인구정책 민·관위원장 참석하여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체결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만들기 시동

시·군 43개소 23억원 투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

전북도는 총사업비 23억1,3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노인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개선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820개소, 노인보호구역 4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시장·군수의 수요 요청에 따라 신규 보호구역의 정비 및 보호구역으로 개선이 시

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 8개 시·군 43개소를 선정하여 교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도색,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0% 감소를 목표로 상반기 1회 추경예산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820개소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전부 교체·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운전자들이 멀리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크게 감소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의 고질적 안

전주시 관행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 신고만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제 운영을 도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운전자들에게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통행 시 신호 준수, 속도저감 및 불법주정차 금지 등을 당부했다"며,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환경청, '환경 사랑 초록기자단' 모집

새만금환경청은 '제5기 환경 사랑 초록기자단' 30명을 모집한다.

모집은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발된 초록기자단은 가정·학교·자연체험 등 일상의 친환경 실천사례나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기사 또는 단편 만화로 작성하게 된다.

대학생과 일반인 기사는 지역 내 환경뉴스를 직접 취재하고 환경기념일

과 멸종위기종 방류 등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새만금환경청은 매일 우수기자 3명을 선정해 포상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한다. 연말에는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기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을, 우수기자 2명에게는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을 수여한다.

지원 신청은 새만금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smg)에서 지원서를 내

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mg@me1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4월 10일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환경사랑 초록기자단 카페를 통해 발표된다.

장일석 새만금환경청 기획과장은 "지역 내 환경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친환경을 실천하는 환경 자립이로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초록기자단 모집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8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구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이외의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소재지	분묘기수	분묘번호
전북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산92-2	1기	무연고(No.2)

2. 개장사유 : 국도19호선 입실 성수 태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 남골당 안치
4.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2019. 3. 18. ~ 2019. 6. 17(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정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7. 신고처
- 국도30호선 입실 성수 태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장사무소 (휴대폰010-3673-4385)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2019. 3. 18.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